

주간 통일정세

2018-06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28	동포 차세대들 국내서 '통일아카데미'...“통일시대 위해 노력”(연합뉴스)
	25	北예술단 선발대 23명 오늘 방남...개막전야 강릉공연 준비(연합뉴스) 北예술단 서울공연 일반 관객 500~1천명 늘려(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26	‘北 평창참가’ 정부지원단, 합동관리단으로 확대 개편(연합뉴스) 北 예술단 본진 태운 만경봉 92호 목호항 도착(연합뉴스)
	27	북한 예술단, 공연 앞두고 강릉아트센터 첫 점검(연합뉴스) 北 응원단·김일국 체육상 등 280명 경의선 육로로 南도착(연합뉴스) 北 응원단장 “제2의 6·15시대 여는 첫걸음 될 것”(연합뉴스)
	28	북한 선수단 입촌...국가 연주되자 선수들 눈물(연합뉴스) 北예술단, 남북에 익숙한 노래로 선곡해 인기몰이(연합뉴스)
	29	김영남·김여정, PRK-615편으로 인천공항 도착...방남일정 돌입(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2018. 2. 8.

■ 동포 차세대들 국내서 ‘통일아카데미’…“통일시대 위해 노력”(연합뉴스)

- 유럽·아세안·아프리카 등 38개국 154명의 한인 차세대가 모국의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통일 기여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해외 차세대 초청 통일아카데미’가 8~14일 서울·경기도 연천·파주 등지에서 열림.
- 이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위원장 김덕룡, 이하 민주평통) 유럽지역 회의(부위원장 박종범)와 아세안지역회의(부위원장 이숙진)가 재외동포 차세대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으며, 대부분 한인 2세대들이며 한인 입양인(21명)과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2명)도 포함됨.
- 이들은 9일부터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이동해 통일 특강, 북한 이탈 주민과의 대화, 통일UCC 제작, 파주 DMZ·관문점 견학 등에 참여하며, 11일에는 평창올림픽 현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 선수단 응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나. 국제사회

■ 특이사항 없음

2. 남북 교류협력

2018. 2. 5.

■ 北예술단 선발대 23명 오늘 방남…개막전야 강릉공연 준비(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5일 “남북 간에 협의한 대로 오늘 23명 규모의 북한 예술단 선발대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공연 준비를 위한 기술 실무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선발대는 악기 등 공연에 필요한 장비들도 가져올 것으로 전해짐.
- 선발대는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곧장 버스 편으로 숙소인 인제 스피디움으로 이동해 여장을 푼 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에 공연

- 할 강릉아트센터를 찾아 무대설치 등 공연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으로 전해짐.
- 삼지연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8일 오후 8시 강릉아트센터, 11일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에서 각각 공연할 예정임.

■ **北예술단 서울공연 일반 관객 500→1천명 늘려(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리는 북한 예술단의 서울공연 티켓 당첨자를 애초 500명에서 1천명으로 늘린다고 5일 밝혔다.
- 문체부 관계자는 “응모를 진행한 결과 서울공연의 경우 5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기록했을 만큼 관심이 많았다”며 “관계자 초청을 줄이고 일반 시민을 더 초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애초 티켓 응모자 중 서울공연은 250명, 강릉공연에 280명을 추첨해 각각 2장씩의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공연의 경우 당첨자가 두 배 늘어나게 됨.

2018. 2. 6.

■ **‘北 평창참가’ 정부지원단, 합동관리단으로 확대 개편(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을 5일 자로 정부합동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통일부가 6일 밝혔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북한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표단의 올림픽 경기 참가와 예술 공연 등 부대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합동관리단 단장도 천해성 차관이 그대로 맡고 있으며, 정부합동관리단은 부처·기관 간의 업무 협의와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북한 대표단의 활동 및 행사 지원, 홍보업무 등을 총괄 지원하며 올림픽 개막식이 가까워짐에 따라 평창, 강릉 등 현장 중심 지원에 핵심을 둘 예정임.

■ **北 예술단 본진 태운 만경봉 92호 목호항 도착(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강원도 동해 목호항에 도착함.
- 북한 예술단 140여명을 태운 여객선 만경봉 92호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동해 해상경계선을 통과, 오후 5시께 목호항에 정박했으며, 만경봉 92호가 방파제 안으

- 로 들어와 부두에 접근할 때 해경선 2척이 앞에서 인도했고 예인정 2척이 만경봉 92호에 바짝 붙어 운항함.
- 북한 예술단이 서울로 가면 목호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 92호는 북한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짐.

2018. 2. 7.

■ 북한 예술단, 공연 앞두고 강릉아트센터 첫 점검(연합뉴스)

- 삼지연관현악단의 단원 140여 명은 6일 오전 9시 20분 강릉 올림픽파크 인근의 강릉아트센터에 도착해 공연을 펼칠 사임당홀로 향함.
- 전날 여객선 만경봉 92호로 원산항을 떠난 예술단원들은 오후 5시께 동해 목호항에 정박한 뒤 하선하지 않고 배에서 하룻밤을 묵고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5대의 관광버스에 나눠 타고 강릉으로 이동함.
- 삼지연관현악단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오후 8시 강릉 공연을 한 후 서울로 이동해 11일 오후 7시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고서 귀환할 예정임.

■ 北응원단·김일국 체육상 등 280명 경의선 육로로 南도착(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의 선수들을 응원할 북측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등이 7일 방남함.
- 김일국 체육상을 비롯한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4명과 응원단 229명, 태권도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 등 북측 방남단 280명은 이날 오전 9시 28분 경의선 육로로 경기 파주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함.
- 이들은 입경 수속을 마치면 버스를 타고 곧장 강원도의 숙소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NOC 관계자들은 평창 홀리데이인 호텔,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인제 스피디움에서 묵는 것으로 전해짐.

■ 北응원단장 “제2의 6·15시대 여는 첫걸음 될 것”(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들을 응원할 오영철 북한 응원단장은 7일 “북과 남이 손을 잡고 함께 하는 이곳 제23차 올림픽 경기 대회는 민족 위상을 과시하고 동결되었던 북남관계를 개선해 제2의 6·15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힘.
- 229명의 응원단을 이끌고 이날 방남한 오영철 단장은 숙소인 강원도 인제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답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조선 민족의 기상을 온세계에 뻗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북녘 동포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한다”면서 이렇게 말함.

- 이에 앞서 환영만찬을 주최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북측에서 온 여러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이곳 인제까지 온 길은 관계를 복원하는 소중한 여정이었다”고 말했으며, 천 차관은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과 북의 협조를 축하하고 응원하는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과 공역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확대하고 평화를 다져나가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힘.

2018. 2. 8.

■ 북한 선수단 입촌…국가 연주되자 선수들 눈물(연합뉴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8일 오전 11시 강원도 강릉선수촌에서 공식 입촌식을 함.
- 원길우 단장이 이끄는 북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선수 22명과 임원 24명 등 총 46명이 출전하며, 선수 22명은 남북단일팀이 구성된 여자 아이스하키에 12명,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에 3명씩,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2명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날 입촌식에는 훈련 등의 일정으로 일부 선수단이 불참, 약 30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6일 방남한 북한 예술단 취주악단 80명도 함께 자리함.
- 또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머무는 북한 기자단 약 20명도 입촌식 취재에 나섰으며, 일본 매체들은 북한 입촌식 현장을 직접 연결해 리포트하는 등 외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북한 선수단과 취주악단은 국기 광장을 지나 입촌식 무대로 입장했으며, 강릉선수촌장인 김기훈 울산과학대 교수가 자주색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 이들을 환영함.

■ 北예술단, 남북에 익숙한 노래로 선곡해 인기몰이(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 축하를 위한 남쪽을 방문한 삼지연 관현악단은 8일 공연에서 남북한 모두에 익숙한 노래를 위주로 선곡해 눈길을 끌었는데, 우선 가수 이선희의 ‘J에게’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해 여성 2중창과 코러스로 소화해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으며, 독도를 소재로 한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을 선보이기도 함.
-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날 부른 북한노래 중에는 남쪽 사람들에게 친숙한 노래들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공연의 문을 연 ‘반갑습니다’는 남쪽의 노래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부를 정도로 많이 알려졌고, 엔딩 곡으로 쓰인 ‘다시 만남시다’는 금강산에

서 이산가족들이 재차 작별 상봉하는 날 주로 불리는 곡이어서 남쪽에도 익숙하며 남쪽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흰눈아 내려라’, ‘내나라 제일로 좋아’ 등 경쾌하고 역동적인 노래를 선곡해 관객의 호응을 끌어냄.

-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측은 북측이 제시한 ‘모란봉’과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에 대해 체제선전 성격의 가사를 문제 삼아 공연을 말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모란봉’은 공연을 하지 않고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은 문제가 되는 가사를 바꾸는 방식으로 남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2018. 2. 9.

■ 김영남·김여정, PRK-615편으로 인천공항 도착…방남일정 돌입(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가 9일 오후 1시 46분께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함.
-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은 ‘실세’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비롯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구성됨.
- 북한 대표단은 오후 2시 7분께 공항 의전실에 입장해 조 장관 등과 환담을 나눴으며, 북한 대표단은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본격적인 방남 일정에 돌입함.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24	北김정은, 리설주와 평양 신형 트롤리버스 시승(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국장, 모스크바 방문...“양국 협력 현안 논의 예정”(연합뉴스)
	25	국정원 “황병서, 해임 후 사상교육...김원홍은 해임·출당”(연합뉴스)
	26	北김여정, 방남 예술단 배우 ‘눈갈’...선전선동 분야 계속 맡는듯(연합뉴스)
	27	통일부 “北, 고위급대표단에 김여정 포함...최휘·리선권도 방남”(연합뉴스)
	28	北김정은 부부, 열병식 참석...방남 김영남도 주석단에(연합뉴스) 北매체, 김정각 군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열병식 보도서 호명(연합뉴스)
	군사	28
23		북, 시리아 미얀마에 탄도미사일·화학무기 관련품목 수출(연합뉴스)
28		북한 광물, 중국 수출 절반으로 ‘뚝’...“유엔 제재 효과”(연합뉴스) 한국행 사료 운송 북한 만경봉호, 러 블라디항서 9일째 발 묶여(연합뉴스)
사회 문화	24	“위성사진에 포착된 北 공식시장 증가, 최소 482개”(연합뉴스)
	28	“북한, 평양인구 5% 줄인다...불만분자 이주시켜 정권기반 강화”(연합뉴스)
외교 국방	24	北외무성 “트럼프, 북남관계 개선 궤방 고약한 심술”(연합뉴스)
	25	北신문 “美, 올림픽 후 군사연습 공언...대화흐름 차단 술책”(연합뉴스)
	26	北신문 “코피 아니라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면 美 영영 끝장”(연합뉴스) 북-미, 군축회의에서 미국 핵태세 보고서 놓고 공방(연합뉴스)
	27	러시아-북한 외교 당국자, 모스크바서 4시간 동안 회담(연합뉴스)
	28	北 “우리 대표단 南 방문기간 美측과 만날 의향 없어”(연합뉴스) 中외교부 “北,외교사절에 열병식 참석요청...대사관 관계자 출석”(연합뉴스) 北·몽골 외교장관 회담...“친선·협조 계속 발전”(연합뉴스)
	29	北통신 “러시아와 수교 70돌 공동행사 논의...협조 확대강화”(연합뉴스) EU “11개 비EU회원국도 대북제재 대상 확대에 동참”(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24	평양 무궤도전차 시운전 공개활동	오수용, 조용원, 리설주	-
28	조선인민군 창건 70돐 기념 열병식 참석	김정각, 김여정, 리설주 외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2. 4.

■ 北김정은, 리설주와 평양 신형 트롤리버스 시승(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신형 무궤도전차(트롤리 버스)를 시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와 리설주 동지를 모시고 새형의 무궤도전차 시운전이 진행되었다”라며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자신께서 타보아야 마음을 놓으시겠다고 하시며 늦은 밤 무궤도전차를 타시고 (평양) 시내를 돌아보시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필요한 기술자료들을 보내주겠으니 무궤도전차의 기술적 특성을 보다 갱신하고 다량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여 수도(평양) 여객 운수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수도 여객 운수 부문에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지니고, 특히 추운 겨울날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함.
- 이날 시승식에는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부부장 등이 동행함.

2018. 2. 8.

■ 北김정은 부부, 열병식 참석…방남 김영남도 주석단에(연합뉴스)

-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건군’ 70주년 경축 열병식에는 예전과 달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처음으로 참석함.
- 조선중앙TV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방영한 열병식 녹화중계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일성의 젊은 시절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의 긴 외투와 중절모차림이었고, 리설주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검은색 모피 목도리를 둘렀으며, 이들은 주석단에 입장하기에 앞서 육·해·공 의장대를 사열함.
- 특히 조선중앙TV 아나운서는 리설주를 가리켜 “리설주 여사”라고 호명해 눈길을 모았는데, 북한 공식매체가 리설주를 '여사'로 호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전에는 “리설주 동지”로 소개해왔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2. 4.

■ 북한 외무성 국장, 모스크바 방문…“양국 협력 현안 논의 예정”(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의 립청일 유럽1국 국장이 러시아 측과의 회담을 위해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함.
- 립 국장은 러시아 방문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눈이 많이 오는 데 고생이 많다”는 인사말만 건네고 떠났으며, 곧 러시아 외무부의 한반도 담당인 제1아주국 안드레이 쿨릭 국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 지난 2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립 국장의 방러 사실을 전하면서 “립 국장이 러시아 외무부와 양국 협력 현안 협의를 위해 방러한다. 특히 양국 수교 70주년 공동행사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2018. 2. 5.

■ 국정원 “황병서, 해임 후 사상교육…김원홍은 해임·출당”(연합뉴스)

-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로 황병서가 해임되고 후임에 김정각 인민무력성 제1부부장이 임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5일 밝힘.
-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당 조직지도부의 주도로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이 진행됐다”면서 “검열 결과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고급당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함.
- 또 “제1부국장 김원홍은 해임 및 출당 처분을 받았고 부국장 염철성과 조국진은 강등 후 혁명화 교육을 받는 등 다수 간부가 해임 또는 처형됐다”면서 “황병서 후임으로는 전 인민무력성 1부상인 김정각, 조직부국장에 손철주, 선전부국장에 이두성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2018. 2. 6.

■ 북김여정, 방남 예술단 배웅 ‘눈길’…선전선동 분야 계속 맡는듯(연합뉴스)

-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6일 권혁봉 문화성 국장과 현송일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이 올림픽 축하공연을 위해 5일 평양에서 출발했다며 “평양역에서 박광호 동지,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

- 회 간부들과 문화성 일꾼들이 예술단을 전송했다”고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같은 내용의 기사와 함께, 김여정을 포함한 간부들로 보이는 인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검은색 털모자와 붉은 코트 차림의 예술단원들을 배웅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함.
 - 김여정이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인 박광호와 함께 예술단 전송에 나섰다라는 점으로 볼 때 김여정은 선전선동 분야에 계속 몸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임.

2018. 2. 7.

■ 통일부 “北, 고위급대표단에 김여정 포함…최휘·리선권도 방남”(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함.
-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남쪽 땅을 밟은 것은 김여정이 처음임.
- 또 국가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과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대표단 단원으로 포함됨.

2018. 2. 8.

■ 北매체, 김정각 군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열병식 보도서 호명(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인민군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정각 동지”라고 언급함.
- 김정각 신임 총정치국장은 8일 조선중앙TV의 열병식 실황 녹화중계에서도 리명수 군 총참모장과 함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양옆에 서고, 김정은의 연설에 앞서 사회를 봐 새로운 위상이 간접 확인됨.
- 그리고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와 12월 군수공업대회 현장에 불참했던 리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이번 열병식 주석단에 서 있는 모습이 중앙TV에 포착됨.
- 중앙통신은 열병식 기사에서 주석단 ‘특별석’에 자리 잡은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중 한 명으로 리만건 전 당 군수공업부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군수공업부장 자리는 지난해 10월 열린 노동당 7기 2차 전원회의 이후 리만건에서 태중수로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보도를 볼 때 리만건은 새로운 직책

으로 이동해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보임.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 특이사항 없음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2. 8.

■ 北, ‘건군절’ 열병식 생중계 생략…평창 개막 고려했나(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8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북한이 정규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열병식으로, 병력 1만3천여명 등 5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TV는 열병식을 생중계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북한 매체에 열병식 개최와 관련한 언급도 없는 상태임.
-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메시지”라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북한이 나름대로 고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함.

■ 北, 열병식에 ICBM급 미사일 동원…“핵무력 과시한듯”(연합뉴스)

-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방영한 열병식 행사에는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ICBM급 ‘화성-14’형, ‘화성-15’형의 전략미사일이 등장했다.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형도 동원함.
- 하지만 이번에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비롯한 다른 SLBM은 모두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작년 4월 열병식보다 동원한 무기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북한이 ‘핵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화성-14, 15형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함.

■ **北 ‘건군절’ 열병식…“우리 존엄 0.001mm도 침해 못하게 해야”(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실황을 서울시간 오후 5시 30분께부터 약 1시간 45분간 녹화 중계함.
- 올해 열병식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지난해 열병식보다 길이도 짧아지고 전체적인 구성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서 직접 육성 연설에 나서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 부산을 피우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며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희롱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다”고 주장함.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2. 3.

■ **북, 시리아·미얀마에 탄도미사일·화학무기 관련품목 수출(연합뉴스)**

- 북한이 시리아와 미얀마에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을 포함해 무기를 수출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유엔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보고서는 2012~2017년 북한에서 시리아 과학연구센터(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관장하는 기구)로 선박을 통한 물품 운반이 40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특히 탄도미사일 및 화학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품목의 이전을 포함해 무기금수 위반 증거가 나왔다고 밝힘.

- 일부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서 시리아로 향하던 두 건의 북한 화물은 중간에서 차단해 검색한 결과 대규모의 내산성(acid-resistant·耐酸性) 타일을 적발했는데 이는 화학 공장의 내부 벽면용 벽돌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타일로 알려졌고, 이와 함께 한 유엔 회원국은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다중 로켓 발사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의 재래식 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전받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유엔에 보고함.

2018. 2. 8.

■ 북한 광물, 중국 수출 절반으로 ‘뚝’...“유엔 제재 효과”(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의 대(對) 중국 광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2016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 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대중 광산물 수출액은 6억 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55.9% 감소했으며, 전체 수출품에서 광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6.4%에서 지난해 37.2%로 크게 감소함.
- 광물자원공사는 “북한이 수출하는 광산물 중 석탄, 동, 아연 등의 수출액이 유엔 대북제재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북한의 주력 품목인 석탄(무연탄)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고 언급함.
- 역시 유엔 제재로 수출이 중단된 동(-99.5%), 아연(-98.7%)의 물량도 크게 줄었음.

■ 한국행 사료 운송 북한 만경봉호, 러 블라디항서 9일째 발 묶여(연합뉴스)

-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북한 선적의 화물·여객선(화객선) 만경봉호는 한국으로 수출될 중국산 사료를 운송하던 중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입항을 거부당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만경봉호 운영을 맡은 러시아 해운회사 ‘인베스트스트로이트레스트’ 사장 블라디미르 바라노프는 8일 “블라디보스토크항 세관과 항만 당국으로부터 아직 접안 허가를 받지 못해 항만 내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계속 이 상태로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함.
- 세관 당국은 만경봉호가 북한 선박을 이용한 식료품 혹은 농산물 운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97호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항을

거부했고, 인베스트먼트트레이드 측은 동물 사료는 안보리 금지 품목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8. 2. 8.

■ “북한, 평양인구 5% 줄인다…불만분자 이주시켜 정권기반 강화”(연합뉴스)

- 도쿄신문은 8일 북한 관계자를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북한이 올해 평양의 인구를 5% 감축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방침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보도함.
-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평양 인구는 1990년 252만 6천명에서 매년 증가하며 2005년에는 280만명을 돌파했고, 2017년에는 288만 4천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2011년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6년 동안 4만 5천명이 증가함.
- 도쿄신문은 북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평양 인구 5% 감축은 지난해 주민 추방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물자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이 배경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시장관련

2018. 2. 4.

■ “위성사진에 포착된 北 공식시장 증가, 최소 482개”(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을 인용하여 2월 현재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북한 공식 시장의 수는 482개로, 지난해 8월 집계한 468개보다 최소 14개가 증가했다고 전하면서 길거리로 조성된 장마당이나 임시 시장까지 합치면 그 개수는 더 늘어난다고 보도함.
- 멜빈 연구원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전역에서 최소 26개의 새 시장이 지어졌고, 109개의 시장이 리모델링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 더 큰 규모로 지어졌다고 전함.
- 그러면서 이 같은 시장의 확대는 개인 사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도 상품을 구매하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2. 4.

■ 北외무성 “트럼프, 북남관계 개선 희망 고약한 심술”(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트럼프가 '연두 교서'에서 망언과 망동, 침략행위로 온 미국 사회와 세계를 혼란 속에 몰아넣은 지난 1년간을 ‘놀라운 진보와 특출한 성과로 가득 찬 한해’로 묘사한 것은 말 그대로 트럼프식 오만과 독단, 유아독존의 극치”라고 주장함.
- 그는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 사회제도를 헐뜯는 추태를 부리며 우리에게 대한 최대의 압박을 떠들어댄 것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위력 앞에 질겁한 자의 비명소리에 불과하며, 북남관계 개선에 희망을 놓아보려는 고약한 심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함.
- 이어 “트럼프가 미국식 결단력을 운운하며 감히 힘으로 우리를 어찌 보려는 불순한 기도까지 드러내고 있지만,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트럼프와 그의 사환꾼들이 조선반도에서 무분별한 만용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압할 것”이라고 밝힘.

2018. 2. 5.

■ 北신문 “美, 올림픽 후 군사연습 공언…대화흐름 차단 술책”(연합뉴스)

-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남할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보내겠다고 밝힌 다음날인 5일 매체를 통해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거듭 비난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결과 긴장을 조성하는 반통일적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지금 트럼프 패거리들은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끝나는 즉시 남조선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거론함.
- 신문은 “이것은 침략전쟁 연습의 총포성을 요란하게 터쳐 대화와 평화에로 향한 흐름을 차단하고 전쟁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함.

2018. 2. 6.

■ **北신문 “코피 아니라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면 美 영영 끝장”(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코피 전략’을 거론하면서 “그 무슨 코피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풀 한 포기라도 건드리는 순간 트럼프 자신의 사등뺨(척추뼈)가 부러지고 아메리카 제국이 지옥으로 화하면서 가뜩이나 짧은 미국의 역사가 영영 끝장나게 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는 부시의 ‘악의 축’ 망발을 상기시키는 트럼프의 악담 속에 ‘코피 전략’이라는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기에 앞서 도발의 명분을 쌓고 침략의 사전포석을 깔아놓으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트럼프는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나발을 불기 전에 무지한 자기보다 백배나 나았던 선임자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와 맞섰다가 참패의 고배를 마셨는가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냉철하게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덧붙임.

■ **북미, 군축회의에서 미국 핵태세 보고서 놓고 공방(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이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북한 핵무기 문제를 놓고 다시 공방을 벌임.
-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담당 대사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시점이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달 2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의 주요 내용을 회원국에 설명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비중을 높이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해 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도 다시 강조함.
- 이에 대해 북한 측 주용철 참사관은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미국이 깨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사전 대응 차원에서 한반

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코피 전략'을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국방부, CIA 등을 앞세워 북한 핵과 미사일을 언급하고 있다고 비난함.

2018. 2. 8.

■ 北 “우리 대표단 南 방문기간 美측과 만날 의향 없어”(연합뉴스)

- 북한은 8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과 미측의 접촉 문제와 관련해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는 남조선 방문 기간 미국 측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힘.
- 조영삼 북한 외무성 국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북측 대표단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접촉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전날 질문에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같을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조 국장은 “미국 부통령 펜스 역시 ‘북 대표단과의 어떠한 접촉도 요청하지 않았다’, ‘남측 당국에 북 대표단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는 희떠운 소리까지 쉼쳐댔다(말했다)”며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대표단이 남조선에 나가는 것은 순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강조함.

나. 북·중 관계

2018. 2. 8.

■ 中외교부 “北,외교사절에 열병식 참석요청…대사관 관계자 출석”(연합뉴스)

- 경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열병식에 중국 인사가 참석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자국) 주재 외교사절단과 국제조직, 외교 기구 및 대표처에 열병식 참석을 요청했다”면서 “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이에 응해 대사관 관계자를 출석시켰다”고 답함.
- 경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반도 정세는 좀처럼 얻기 힘든 완화 국면을 보인다”면서 “중국은 각국이 이를 귀하게 여기고, 자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중국은 유관 각국이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원한다”고 덧붙임.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8. 2. 7.

■ 러시아-북한 외교 당국자, 모스크바서 4시간 동안 회담(연합뉴스)

- 지난 4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북한 외무성의 림청일 유럽1국 국장과 러시아 외무부 안드레이 쿨릭 제1아주국 국장이 이날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함.
- 회담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오찬을 겸해 약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도 회담에 참석함.
- 러시아 외무부는 회담 뒤 결과를 설명하는 별도의 보도문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서 나온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발표 등을 미뤄볼 때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 대화 진전으로 형성된 새로운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됨.

2018. 2. 9.

■ 北통신 “러시아와 수교 70돌 공동행사 논의…협조 확대강화”(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9일 “러시아 외무성의 초청으로 유럽 1국 국장 임천일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실무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며 “단장은 6일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 1국 국장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쿨릭과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전함.
- 통신은 “협상에서는 조로(북러) 외교관계 설정 70돌에 즈음한 공동행사 계획을 비롯하여 쌍무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다”고 밝힘.
- 아울러 “쌍방은 외교관계 설정 70돌이 되는 올해에 두 나라 사이의 호상 내왕(왕래)과 접촉을 긴밀히 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 강화하여 전반적인 쌍무관계 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임.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2. 8.

■ 北·몽골 외교장관 회담…“친선·협조 계속 발전”(연합뉴스)

-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5일 평양을 방문한 담딘 썬트바타르 몽골 외무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상 리용호 동지와 썬트바타르 몽골 대외관계상(외무장관) 사이의 회담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며 “회담에서 쌍방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발전 시켜나갈 데 대해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함.
- 회담에서 리 외무상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정세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발전·풍부화시켜나가자”고 말했고, 썬트바타르 외무장관은 “올해는 두 나라 외교관계 설정 70돌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쌍무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화답함.

2018. 2. 9.

■ EU “11개 비EU회원국도 대북제재 대상 확대에 동참”(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8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 유럽내의 11개 비(非)EU 회원국들도 지난달 22일 EU가 대(對)북한 제재대상에 북한 국적자 17명을 추가한 조치를 채택,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힘.
- EU는 이날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 명의로 이같이 전하고 이들 국가의 결정을 환영함.
- EU의 대북제재대상 추가에 동참한 국가는 전 유고연방 소속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소속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그외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임.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2.05	미국 의회내 첫 한국연구모임 생긴다...“한미동맹 허브”(연합뉴스)	
	02.06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北 올바른 선택 유도위해 긴밀공조”(연합뉴스)	
	02.06		웬스 미부통령, 트럼프 면담후 출국...한·일 방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02.05		“아베, 文 대통령에 올림픽후 조속한 한미 군사훈련 요청할 것”(연합뉴스)
		한일 6자 수석 통화...“北 올바른 선택 유도, 국제사회 책임”(연합뉴스)	
	02.06		아베, 또 ‘한일합의 추가요구 불용’ 거론...“文대통령에 전달예정”(연합뉴스)
	02.08		“아베, 문대통령과 회담서 대북압력노선 확인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02.06		러시아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미 연합훈련 자제해야”(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2.04		중국방부, 美핵태세 보고서 겨냥 “제멋대로 추측했다” 비난(연합뉴스)
	02.08	‘美정부 中화웨이·ZTE 통신장비 금지법안’ 상원서 발의(연합뉴스)	
	02.09	틸러슨-양제츠 워싱턴서 회동, ‘대북압박 노력’ 재확인(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2.03	미·일 정상 “최대의 대북압박작전 강화 필요성에 합의”(연합뉴스)	
	02.06	미일 6자 수석대표 도쿄서 회동...대북압력 강화 확인(연합뉴스)	
	02.07	미일, 대북압력 최대강화 합의...펜스 “전례없는 경제제재 발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2.03	미 “러시아 핵위협시 끔찍한 대가 치를 것” 핵태세 보고서 발표(연합뉴스)	
			러시아, 미국 핵태세보고서 강하게 비난...“대결적이고 반러시아”(연합뉴스)
	02.06	미·러, 핵감축협정 이행 마감일에 “감축 달성” 발표(연합뉴스)	
	02.08		러시아, 추가 대북 제재 시사 미국 비판...“안보리 권위 훼손”(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2.06	中日 군사교류 사업, 6년 만에 재개...중국 대표단 4월 방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02.08	중러 밀월 가속...시진핑·푸틴 '지방교류협력의 해' 축하메시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02.07		러시아, 쿠릴열도 영토분쟁지역서 군사훈련...日 '발끈'(연합뉴스)
		러-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한반도 정세 변화 상세 논의”(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2. 05.

■ 미국 의회내 첫 한국연구모임 생긴다…“한미동맹 허브”(연합뉴스)

-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현역의원들의 모임이 탄생한다. 모임은 오는 6일 오후 하원 의원회관인 레이번 빌딩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함.
-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협력을 얻어 ‘미국의회 한국연구모임(The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을 발족함.
- 과거 단순한 친선 모임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활동과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여서 한미동맹과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北 올바른 선택 유도위해 긴밀공조”(연합뉴스)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사항 등 현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철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주부터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명실상부한 ‘평화 올림픽’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함. 아울러 양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조성 모멘텀이 향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 양측은 북한을 북핵문제 관련 의미 있는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함.

2018. 02. 06.

■ 펜스 미부통령, 트럼프 면담후 출국…한·일 방문(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2호기 편으로 출국함.
-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여사는 이날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 6~8일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미국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8일 한국을 찾음. 특히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에 2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현지 군부대를 방문, 북부사령부 수뇌부로부터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임.
- 앞서 펜스 부통령은 출국 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으며 출국 인사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전할 메시지를 상의했을 가능성이 커 보임.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한·일 관계

2018. 02. 05.

■ “아베, 文 대통령에 올림픽후 조속한 한미 군사훈련 요청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력을 가하기 위해 3월 중순 평창 패럴림픽 폐회 후 조속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요청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함.
- 아베 총리는 6~8일 일본을 방문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함.
-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가 펜스 부통령에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과거와 동일한 규모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으며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이 각각 방한 시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훈련을 확실히 실시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함.

■ 한일 6자 수석 통화…“北 올바른 선택 유도, 국제사회 책임”(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오후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관계 및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에 대해 협의함.

-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양측은 남북관계 및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 최근 현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들에 관해 협의함.
- 양측은 아울러 북한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국제 사회의 책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힘.

2018. 02. 06.

■ **아베, 또 ‘한일합의 추가요구 불응’ 거론…“文대통령에 전달예정”(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할 예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입장과 함께 국민감정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함.
-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이뤄진 영자지 재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죄를 언급하는 등 추가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아베 총리는 또한, 7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거론할 전망이다(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보도함. 닛케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의제가 될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합의를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함.

2018. 02. 08.

■ **“아베, 문대통령과 회담서 대북입력노선 확인할 것”(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9일 평창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압력 노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나카네 가즈유키(中根一幸) 외무성 부대신이 8일 밝힘.
- 나카네 부대신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호시노 쓰요시(星野剛士)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나카네 부대신은 “압력을 최대한도로 높인다는 방침에서 흔들리면 안된다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고 한미일의 연대를 재차 확인할 것”이라고 말함.

라. 한·러 관계

2018. 02. 06.

■ 러시아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미 연합훈련 자제해야”(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활용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후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자제해 줄 것을 양국에 촉구함.
-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5일(현지시간) 자국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한반도 인근에서의 군사훈련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힘.
- 그는 “우리는 올림픽 기간 중 훈련을 연기한다는 미국과 한국의 발표를 환영했다”면서 “이 기간(훈련 연기 기간)이 더 연장되길 바란다”고 말함. 이어 “러시아는 이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양자 대화에 열려 있으며, 북한 대표들과도 논의하고 있고, 중국 동료들과도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2. 04.

■ 중국방부, 핵태세 보고서 겨냥 “제멋대로 추측했다” 비난(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북한·러시아·중국 등을 겨냥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함.
- 4일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런궈창(任國強)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 태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제멋대로 추측한 것이며 중국의 핵 역량 위협을 과장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 런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발전과 방위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함. 그는 이어 “중국은 핵무기 개발을 매우 자제하고 있으며 핵 역량은 국가안전의 필요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시대의 대세를 정확히 봐야 한다고 지적함.

2018. 02. 08.

■ **‘美정부 中화웨이·ZTE 통신장비 금지법안’ 상원서 발의(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나 ZTE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톰 코튼(아칸소)과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등 공화당 소속 두 상원의원에 의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 코튼 의원은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에 속한 기관”이라고 지적, “이는 자사의 장비를 해킹, 미국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수준 이상”이라고 말함.
- 코튼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기업들도 많다.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줘선 안 된다”고 말함.

2018. 02. 09.

■ **틸러슨-양제츠 워싱턴서 회동, ‘대북압박 노력’ 재확인(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압박에 힘껏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방미 중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함.
- 노어트 대변인은 “두 사람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8. 02. 03.

■ **미·일 정상 “최대의 대북압박작전 강화 필요성에 합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음.
- 미·일 양국 정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힘.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최대의 압박작전’을 강화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엄중히 단속하려는 노력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유지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대해 아베 총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백악관은 전함.

2018. 02. 06.

■ 미일 6자 수석대표 도쿄서 회동…대북압력 강화 확인(연합뉴스)

- 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6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 강화 노선을 유지하기로 함.
-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조셉 윤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함.
- 외무성은 “두 사람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남북간에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환영하며, 북한의 ‘미소외교’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해 최대한 압력을 가해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2018. 02. 07.

■ 미일, 대북압력 최대강화 합의…펜스 “전례없는 경제제재 발표”(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7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기로 함.
- 두 사람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아베 총리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힘. 특히 펜스 부통령은 회견에서 “곧 북한에 대한 전례 없이 엄중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대북 압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함.
- 두 사람이 오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도쿄에서 만나 북한을 겨냥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최근 남북 간 대화 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됨.

다. 미·러 관계

2018. 02. 03.

■ “러시아 핵위협시 끔찍한 대가 치를 것” 핵태세 보고서 발표(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핵 능력 확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러 강경 입장을 부각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에 초점을 맞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AP통신, AFP 통신 등이 보도함.
- 보고서에는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김.

■ 러시아, 미국 핵태세보고서 강하게 비난…“대결적이고 반러시아”(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가 3일(현지시간)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전날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강하게 비난함. 외무부는 “이 문서의 대결적이고 반(反)러시아적 성격이 명백하다”면서 “이는 깊은 실망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함.
- 이어 “미국은 러시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핵전력 현대화와 러시아의 독트린에서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의 역할을 인용해 자체 핵무기 대규모 증강 노선에 근거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고 모종의 ‘공격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함.
- 외무부는 “러시아의 군사독트린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두 가지의 철저히 방어적인 시나리오에 제한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러시아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적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하지만,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에 처한 시나리오 등이 그것”이라고 강조함.

2018. 02. 06.

■ 미·러, 핵감축협정 이행 마감일에 “감축 달성” 발표(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7년 전 체결한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목표를 약속대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했다고 협정 이행 마감일인 5일(현지시간) 각각 공식성명을 통해 나란히 밝힘.
-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감축을 완료하고 지난해 8월 (감축)한도를 달성했다”고 밝힘. 노어트 대변인은 또 양국이 관련 정보 자료를 “다음 달 안에” 교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협정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밝히고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전함.

2018. 02. 08.

■ **러시아, 추가 대북 제재 시사 미국 비판·“안보리 권위 훼손”(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
-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8일(현지시간)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펜스 부통령 발언에 대해 논평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천명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핵 해결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함.
- 라브코프는 “우리는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도발적 행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결의들을 채택하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안보리 라인을 통해 일해왔으며 제재 분야에서 이미 충분히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면서 “우리가 보기엔 안보리를 통한 그러한 종류의 행동(제재) 가능성은 사실상 고갈됐다”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2018. 02. 06.

■ **中日 군사교류 사업, 6년 만에 재개·중국 대표단 4월 방일(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단했던 방위 교류사업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4월 중국이 대표단을 파견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6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재단의 사사카와 요헤이(笹川陽平) 회장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그간 중단됐던 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 젊은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일 영관급 교류사업’을 재개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힘.
- 사사카와 회장은 과거의 교류사업이 양국 이해 증진에 역할을 했으며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을 5년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마. 중·러 관계

2018. 02. 08.

■ **중러 밀월 가속…시진핑·푸틴 ‘지방교류협력의 해’ 축하메시지(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러시아와 ‘지방교류협력의 해’를 맞아 푸틴 대통령과 축전을 교환하며 긴밀한 관계를 과시함.
-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러 ‘지방교류협력의 해’ 개막식이 열린 전날 푸틴 대통령과 축전을 교환함.
- 시 주석은 러시아와 교류협력은 양국 기업과 인민의 공동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지방 차원의 교류협력이 양국 호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푸틴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협력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있다면서 지방협력이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바. 일·러 관계

2018. 02. 07.

■ **러시아, 쿠릴열도 영토분쟁지역서 군사훈련…日 ‘발판’(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일본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함.
- 러시아군은 앞서 지난 6일 쿠릴 열도에서 2천명 규모의 군사훈련과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사훈련이 진행된 곳에는 러시아-일본 간 영유권 분쟁지 ‘쿠릴 4개섬’ 중 하나인 구나시리(國後)가 포함됨.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7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와 관련해 외교 루트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 “(훈련이) 북방영토에서의 러시아의 군비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고 밝힘.

■ **러·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한반도 정세 변화 상세 논의”(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힘.
- 외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

양주국장의 회담 사실을 전함.

- 보도문은 “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 경향과 한반도 사태의 정치·외교적 해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상세히 논의됐다”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계속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소개함. 러시아 외무부는 더 이상의 상세한 회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2.3	트럼프 “중국에 북 여성 인신매매 근절 요청하겠다”(자유아시아방송) 백악관 “트럼프-문재인, 북 인권 개선 중요성 논의”(자유아시아방송)
	2.5	WFP, 올 봄 북 당국과 식량상황 전수 조사(자유아시아방송)
	2.6	북한인권위원회, 중국 등 반대로 유엔 협의지위 얻는 데 실패(미국의소리) 전문가들 “트럼프 북한인권 부각, 북한 선전선동 차단 의도”(미국의소리) 영국 인권단체 “북 인권은 ‘체인지메이커’ 청년들에 초점 되어”(연합뉴스)
	2.7	북한일꾼 고용 유럽기업 ‘강제노역’ 소송당할 수도(미국의소리) 북한인권위원회 “유엔 협의적 지위 획득 노력 계속할 것”(미국의소리) 북한 해외근로자 실태 보고서 “한 달 생활비 27달러”(미국의소리) 북한 억류 김상덕 씨 가족, 평창올림픽 계기 석방 촉구(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남한동향	2.8 현대研 “대북 인도적 지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2.3
2.6		펜스 부통령, 북한 유화공세 차단에 중점... 탈북자 면담 예정(미국의소리) 펜스, 개막식 참석 앞서 탈북자들 만나...천안함 기념관도 방문(자유아시아방송)
2.7		트럼프 대통령 만난 탈북자 “북한인권 개선 적극 나서길”(미국의소리)
2.9		인권전문가·탈북자들 “북한, 평창올림픽 정치적으로 이용”(미국의소리) 트럼프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또 언급...“탈북자 지성호 씨는 희망의 상징”(미국의소리)
대북지원	2.8	영국, ‘인권유린·해개발’ 북한에 지원 중단(자유아시아방송)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2. 3.

■ 트럼프 “중국에 북 여성 인신매매 근절 요청하겠다”(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내 보편적인 인권 상황을 경청함. 특히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에 심각성을 나타내고, 중국 정부에 이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함.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탈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여성의 중국 내 인신매매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고 중국 정부에 근절을 촉구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 또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자들에게 북한 내 보편적인 인권 상황, 예를 들어 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전기와 배관 시설은 어떤지, 북한 주민이 기본적인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짐.

■ 백악관 “트럼프-문재인, 북 인권 개선 중요성 논의”(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함.
- 백악관은 2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 서로 적극 협력하는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고 백악관 측은 덧붙였다.
- 한미 양국 정상은 이번 대화는 지난 1월 초 전화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후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데 합의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임.

2018. 2. 5.

■ WFP, 올 봄 북 당국과 식량상황 전수 조사(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올 봄 북한 전역의 식량 보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세계식량계획은 2018년 봄 북한 통계국과 공동으로 식량안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번 주 공개한 국가보고서에서 밝힘.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천만 명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라면서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함.
- 유엔의 식량구호기구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인도주의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모금이 극도로 부진해져서 지원 규모를 축소할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힘.
-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11 월 이후 북한 전역의 19 만 명의 유치원생에 대한 영양 지원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함.

2018. 2. 6.

■ **북한인권위원회, 중국 등 반대로 유엔 협의지위 얻는 데 실패(미국의소리)**

-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IK)가 유엔의 공식 자문기구 지위를 얻는데 실패함.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 기구에 협의지위를 주는데 반대한 중국, 러시아 등을 비판함.
-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비정부기구 위원회가 북한인권위원회와 이란인권조사센터(IHRDC)에 협의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협의 지위는 유엔과 비정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란과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유엔에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함.
-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하는 유엔 위원회가 끔찍한 인권 관련 기록을 가진 국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지적임.
- 북한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에 협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반대한 국가들은 중국, 부룬디, 쿠바,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등임.
-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인권의 수호자들과 함께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자격이 있는 비정부단체들이 유엔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전문가들 “트럼프 북한인권 부각, 북한 선전선동 차단 의도”(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킨 것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해보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함.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지적도 나옴.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국정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자세히 소개함. 또한 2일에는 백악관에서 탈북자 8명과 면담하는 등 최근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킴.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북한을 압박하는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함.
-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한 부분이라는 분석임.
- 코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다각적이며, 핵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잇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말함.

■ 영국 인권단체 “북 인권은 ‘체인지메이커’ 청년들에 초점 뒀어”(연합뉴스)

-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인권단체인 세계기독교연대(CSW)는 5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은 ‘체인지 메이커(change-makers)’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 2007년에 7년에 걸친 탈북자들과 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을 상대로 한 인터뷰들을 토대로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국제법상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한 점을 밝히고 유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구성을 촉구한 세계기독교연대는 이날 내놓은 두 번째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림.
- 세계기독교연대는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패션과 교제에서부터 경제적 거래에까지 모든 것에서 점차 경계를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함.
- 보고서는 지난해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토대로 10년 전과 비교해 북한 사회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 변화 ▲외부 세계에서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의 변화 ▲탈북 형태 변화 ▲표현의 자유와 국가에 대한 비판의 변화 ▲북한의 법과 관행상 인권 변화 등을 살핌.

2018. 2. 7.

■ 북한일꾼 고용 유럽기업 ‘강제노역’ 소송당할 수도(미국의소리)

-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유럽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노역’으로

인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옴.

- 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내 아시아센터는 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강제노역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함.
- 보고서에 따르면 EU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당 간부들에게 여권과 임금을 압수당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으며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됨.
- 라이덴아시아센터는 보고서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 임금의 대부분은 당에서 압수하고 있는데 이들을 고용한 EU 기업들이 북측의 이러한 방침 때문에 ‘강제노역’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북한인권위원회 “유엔 협의적 지위 획득 노력 계속할 것”(미국의소리)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유엔의 ‘협의적 지위’를 받는데 실패함. 이 단체는 오는 4월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며, 이 때는 지금보다 전망이 밝다고 말함.
-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으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협의적 지위는 비정부기구(NGO)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얻는 지위로, 이 지위를 가진 NGO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등 유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비정부기구 위원회가 NGO들의 신청서를 검토해 경제사회이사회에 추천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리게 됨.

■ 북한 해외근로자 실태 보고서 “한 달 생활비 27달러”(미국의소리)

- 폴란드와 러시아 등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하는 보고서가 공개됨. 북한 당국에 바칠 상납금을 채우느라 장시간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근로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김.
-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이 6일 발표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에는 K씨처럼 폴란드와 러시아 등지에 파견돼 열악한 환경과 임금 조건 아래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음.
- K씨는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했지만 관리자들의 지시가 있으면 24시간 근무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말함. 숙소에서는 TV를 볼 수도 없었고 난방도

제공되지 않음.

- 다른 나라 출신 근로자들이 월급 1천800달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자신은 150달러 밖에 못 받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600달러를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함.
- ‘이익을 위한 사람들-세계적 차원의 북한 강제노동(People for Profit-North Korea Forced Labour On A Global Scal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일상도 담음.
- 라이덴 대학 아시아센터가 탐사전문 기자들과 공동으로 2017년 블라고베시첸스크와 블라디보스톡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임.

■ 북한 억류 김상덕 씨 가족, 평창올림픽 계기 석방 촉구(미국의소리)

-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김상덕 씨 가족이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섬. 김상덕 씨의 아들 김솔 군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미국 정부가 아버지(김상덕)와 다른 억류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김 씨 가족의 대변인도 “우리가 올림픽 선수를 응원하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앞서 북한 당국은 2017년 4월 평양과학기술대학 회계학 교수인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를 ‘적대적 범죄행위’ 혐의로 체포함.
-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3명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2. 8.

■ 현대연 “대북 인도적 지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연합뉴스)

- 대북 인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옴.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이해정 연구위원은 8일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연구팀은 박근혜 정부 이래로 사실상 멈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만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임.
 - 연구팀은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식 등 지원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면서 점차 정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북한 임신부, 5세 미만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함.
 - 아울러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간접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2. 3.

■ 트럼프 대통령, 탈북민들과 백악관 환담 “북한은 살기 힘들고 위험한 곳”(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민 8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살기 어렵고 위험한 곳”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탈북민들은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아달라고 호소함.
-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식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적임자를 찾는 논의를 최근 들어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탈북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defector’보다 더 강력한 의미인 ‘escapee’ 즉 ‘탈출자’란 단어를 사용하며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아주 놀랍다고 말함.
- 그러면서 “북한은 살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곳, 아주 위험한 곳”이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이날 공개 면담에는 지성호 씨 외에 북한 대학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쳤던 현인에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5호 요덕관리소 출신 정광일, 김영순 씨가 참석함.
-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투옥, 심지어 끔찍한 공개처형까지 당하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강조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임.

2018. 2. 6.

■ **펜스 부통령, 북한 유화공세 차단에 중점...탈북자 면담 예정(미국의소리)**

-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북한의 유화공세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힘. 펜스 부통령은 또한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의 유화공세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힘.
- 이 관리는 5일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 정권이 선전 선동으로 올림픽의 메시지를 납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특히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해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워비어 씨를 특별 손님으로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함.
- 백악관의 한 관리는 펜스 부통령과 워비어 씨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전 세계에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말함.

■ **펜스, 개막식 참석 앞서 탈북자들 만나...천안함 기념관도 방문(자유아시아방송)**

-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개막식 참석에 앞서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탈북자들과 만날 예정임.
- 평창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압박'과 함께 '인권 카드'를 활용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임.
- 실제 펜스 부통령은 개막식 참석에 앞서 탈북자들과 만날 예정임. 경기도 평택의 천안함 기념관도 방문함. 이 자리에는 탈북자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펜스 부통령이 9일 오전 탈북자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명단을 현재 조율 중에 있다"고 말함.
- 면담 참석을 요청받은 한 탈북자도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통보 받지 못했다고 하며 면담에서는 북한에서의 생활이나 탈북 과정 등 열악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2018. 2. 7.

■ **트럼프 대통령 만난 탈북자 “북한인권 개선 적극 나서길”(미국의소리)**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탈북자 이현서 씨가 말함. 또한, 최근 탈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북한 내 상황이 개선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탈북자 이현서 씨가 촉구함.
- 이씨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이 매달 제작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인권 영웅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하는 것처럼 탈북자 강제북송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를 압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함.
- 이 씨는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 문제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반면, 일반 북한주민들과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의 고통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주위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공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함.

2018. 2. 9.

■ **인권전문가·탈북자들 “북한, 평창올림픽 정치적으로 이용”(미국의소리)**

-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이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북한의 대대적인 유화공세에 북한인권 문제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에 의해 정치적 행사로 변질됐다고 지적함.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권을 위한 선전 선동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웬비어 씨의 아버지를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 또 언급...“탈북자 지성호 씨는 희망의 상징”(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또 다시 언급함. 탈북자 지성호

- 씨를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 소개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함.
- 트럼프 대통령은 억압과 종교적 박해를 받는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두를 위해 미국이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그 외 다른 여러 나라들의 수백만 국민들이 억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아래 고통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힘.

5. 대북지원

2018. 2. 8.

■ 영국, ‘인권유린·핵개발’ 북한에 지원 중단(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정부가 지난해 말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2017회계연도에 영국의 대북지원은 6만 4천 파운드에 그침.
- 영국 정부는 북한에서 평양 이외 지역의 유아원과 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영양개선사업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마저 중단했다고 영국 외교부의 마크 필드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상이 밝힘.
- 영국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지난해 말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함.
- 영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계속해서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 설명임.